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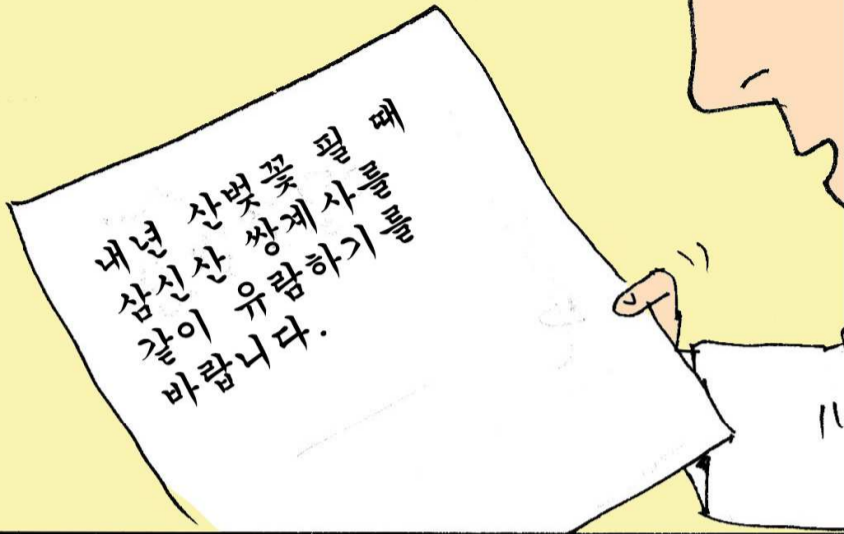
# 10. 견문을 넓히다(남도기행)(33세)

퇴계가 영지산 기슭에 지산와사(芝山蝸舍)를 짓고 살 때였다.



계십니까?  
곤양군수께서 보낸 서찰을 가져왔습니다.

임진년(1532) 가을  
곤양군수 관포 어득강의  
편지가 왔다.



관포 어득강은 63세의  
노인이었다.

현직 군수께서  
30살이나 어린  
나를 초대하다니



말이 되냐구?

되지요.



군수님께선 학문과 시를  
함께 논할 사람이 없어  
외로우신 분이랍니다.

나이 차이가  
서른 살이나  
나는 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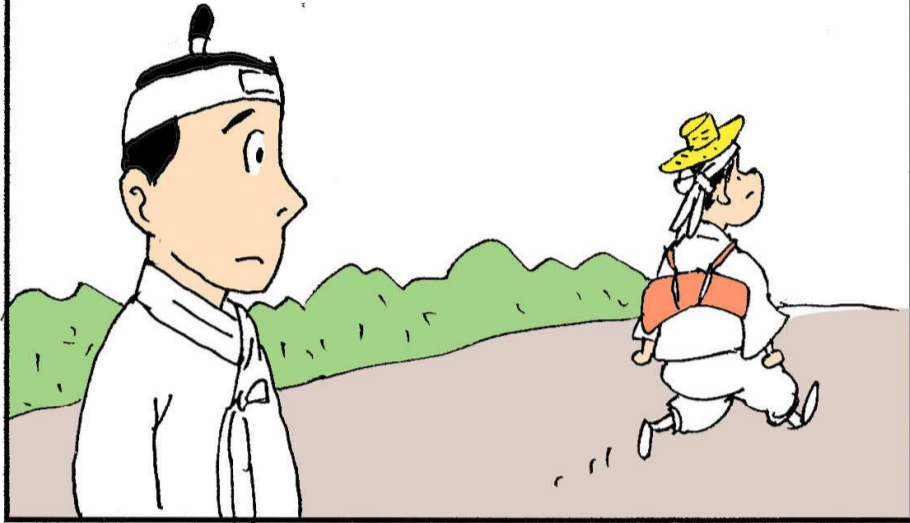
“시를 논할 친구에 무슨 국경과  
나이를 따지느냐”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라  
하셨죠.

호오, 군수님이야말로  
요즘 보기 드물게  
깨어있는 분이시로구나.



그러나 요즘 퇴계는



아직 대과에 급제도 못하였고, 셋째 형의 별세로 아직 상중이라 여행할 분위기가 아니니 자중해야지.....



좋은 기회다. 집안 걱정은 말고 견문도 넓히고 머리도 식힐 겸 유람삼아 다녀오너라



쌍계사까지는 천리나 되는 먼길이에요.



옛사람들도 호연지기를 기를 겸 먼 길을 떠나 산천경계를 즐겼단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말을 잘 다루는 종을 데리고 가렴.



그리하겠습니다.

퇴계가 남도순행 길을 나선 것은 1533년 1월 27일이었다.



올해 눈이 많았지?

네,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낙동강변을 따라가다보면 우선 애일당이 나올 것이다.

알아유. 농암선생 계신 곳이죠?

애일당은 향리의 어른이신 농암 이현보가 46세 되던 1512년 낙동강 분강 기슭의 농암바위 위에다 지은 집이다.



애일당이란 당호가 무슨 뜻 인가요?

연세가 많은 아버지 봉양에 날이 부족하단 뜻이란다.

효심이 지극 하시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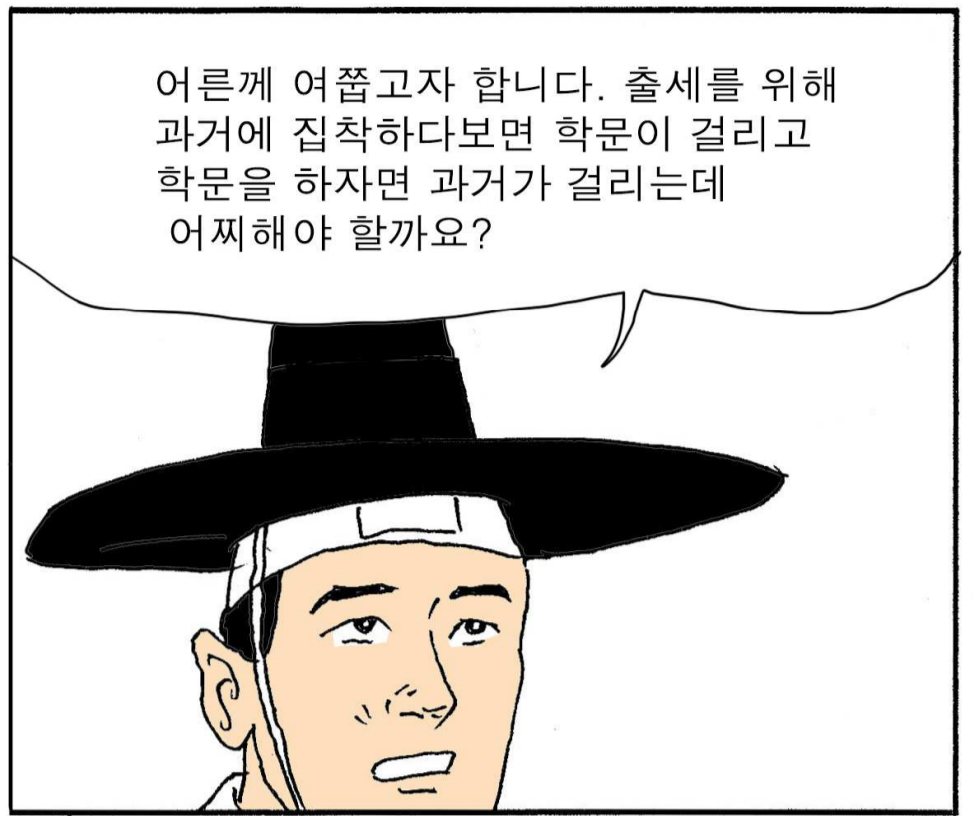


어서 오시게



남쪽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잘 오셨소.



어른께 여쭙고자 합니다. 출세를 위해 과거에 집착하다보면 학문이 걸리고 학문을 하자면 과거가 걸리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학문을 하자면 마땅한 일은 아니나 그래도 과거는 치루는게 좋지요. 세상을 등지고 독불장군으로야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군요.

나으리, 갈 길이 먼데요.



할 말은 많으나 농암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낙동강 강변길로 접어들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일마을로 가자.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은 장인 권질의 고향마을이다.

마을 앞 들이 넓군요.

풍산들이란다.

사촌, 매부, 오씨, 조씨 등 반가워하는 처가쪽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 묵었다.



1월 29일 예천으로 향해 가던 중 어느 마을에  
들렀다.



지난 겨울엔 백성들이 추위로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 올 여름엔 가뭄으로 굶어  
죽어나가 마을은 폐가가 많아요.



양반네들이야 그럴 걱정  
없지만, 우리 굶주림에  
처자식까지 내다  
버렸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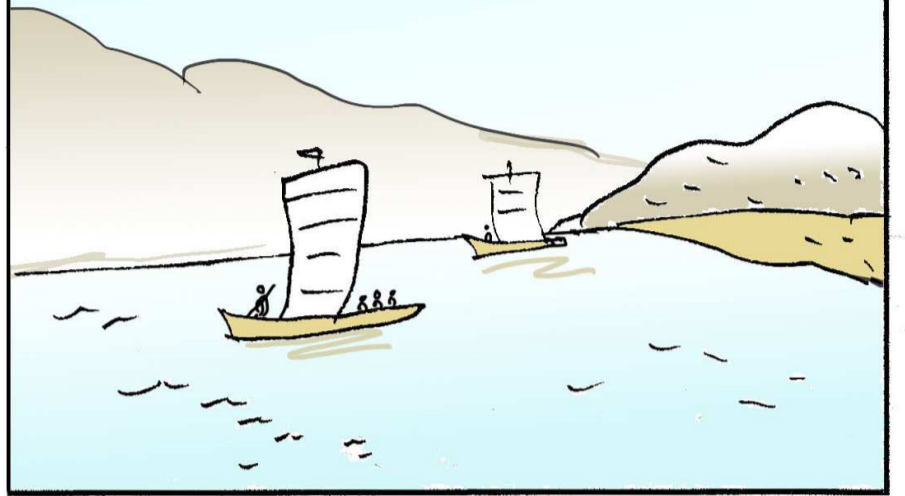
저녁에 양양(현재의 예천)에서 자는데 그들이 불쌍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월 1일 유곡(점촌) 사벌 들녘을 지나  
부처당고개를 넘어가고...



낙동에서 강을 건너 관수루에 올랐다.



관수루에 걸린  
이규보의 시가  
절창이로다.



산승이 달빛을 탐하여  
병속에 길어 담았네  
병을 기울면 달도 빈다는 것을  
절에 가서야 알았으리

山僧貪月光 瓶汲一壺中  
산승탐월광 병급일호중  
到寺方應覺 瓶傾月亦空  
도사방응각 병경월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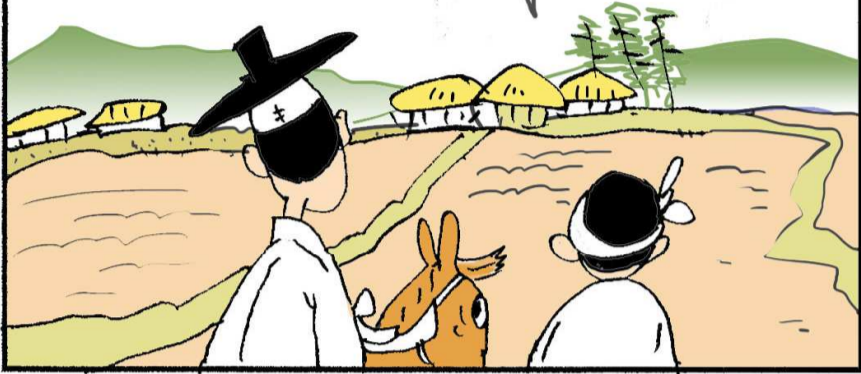


퇴계는 이규보의 시를 차운하여 몇가지 시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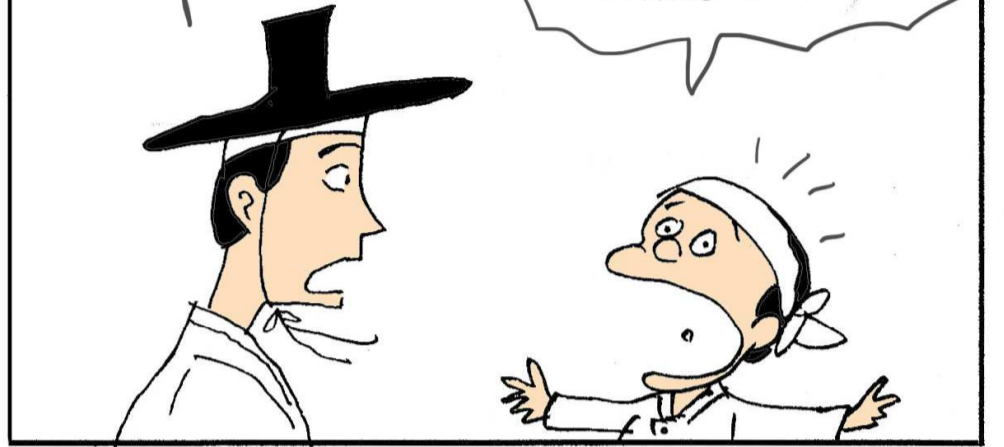
야은 길재가 고려가 망하자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던 선산 보계리를 지나다가...

길재는 어떤 분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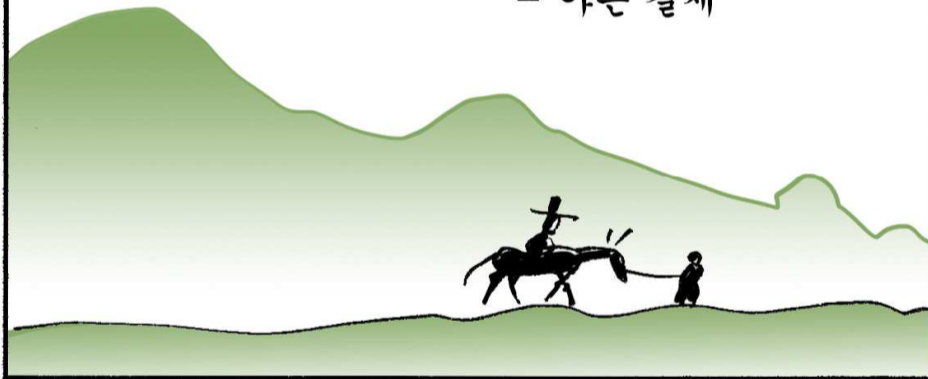
아니 “산천은 의구하데 인걸은 간데 없네”란 시를 지은 야은 길재 선생을 모른단 말이냐?

나으린 서당에 다녔지만 전 근처도 못갔잖아요!



야은 길재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와 함께 고려 말의 삼은으로 불린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야은 길재



고려 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조정에서 길재에게 태상박사를 제수했으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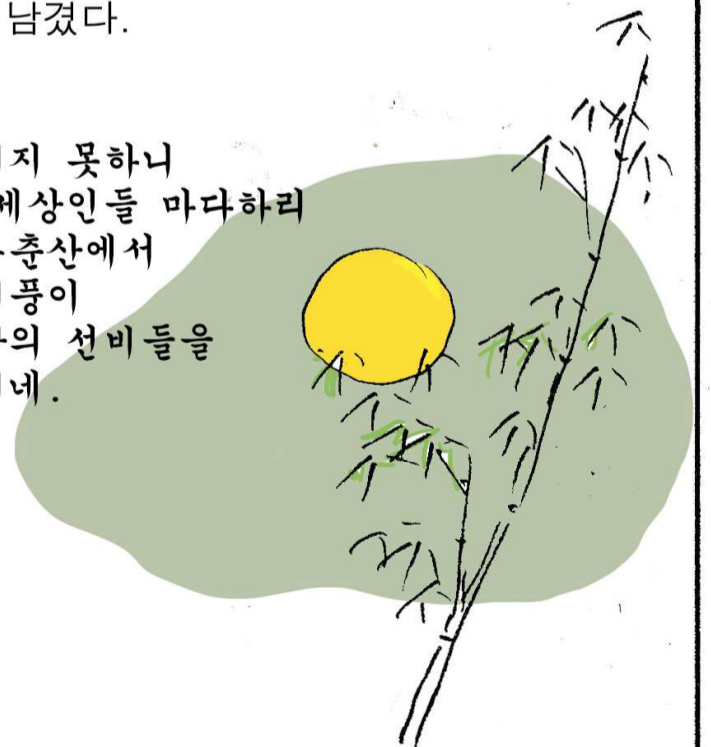
하며 벼슬을 사양했다한다.

길재가 공부하던 태조산 도리사를 지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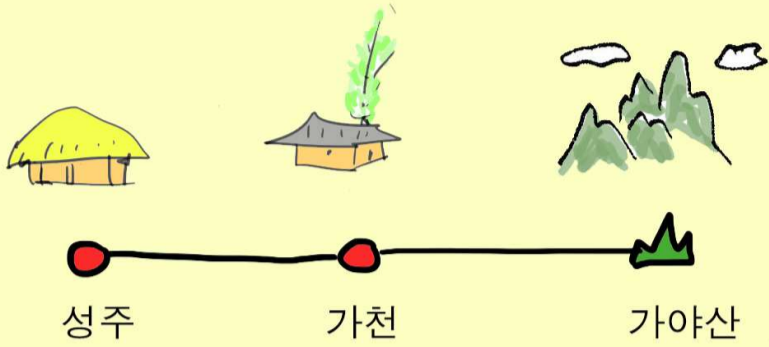
퇴계는 시를 남겼다.

대익은 급히지 못하니  
어찌 속된 세상인들 마다하리  
천 년 전 부춘산에서  
납시하던 기풍이  
다시금 동방의 선비들을  
감격케 하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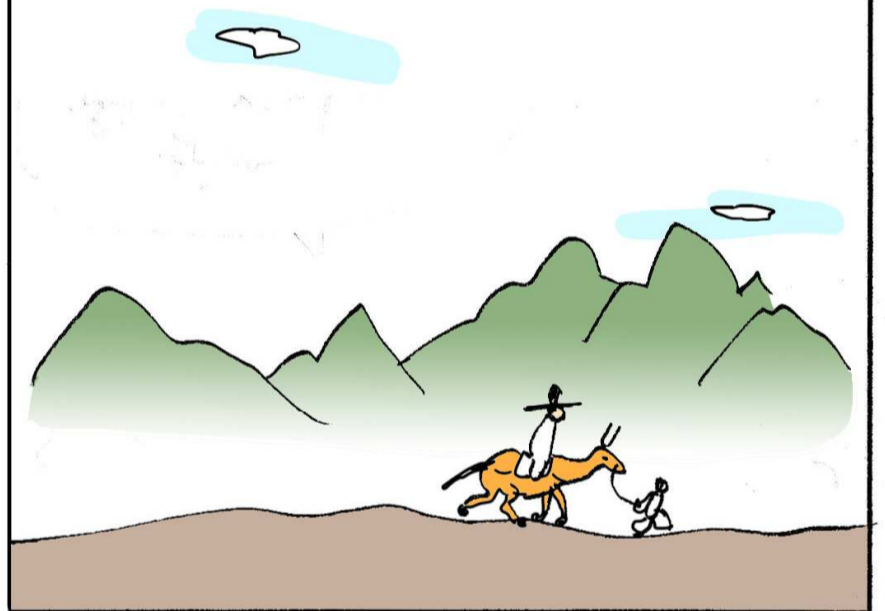
성주에서 가천을 지나 고령에 들어서며 가야산과 마주했다.



당나라에 유학가  
큰 뜻을 품고 신라로  
돌아왔지만 뜻을 펴지 못해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셨다는 분이죠?



퇴계는 홀연히 사라진 최치원을 아쉬워하며  
합천을 향했다.



합천의 남정 함벽루에 이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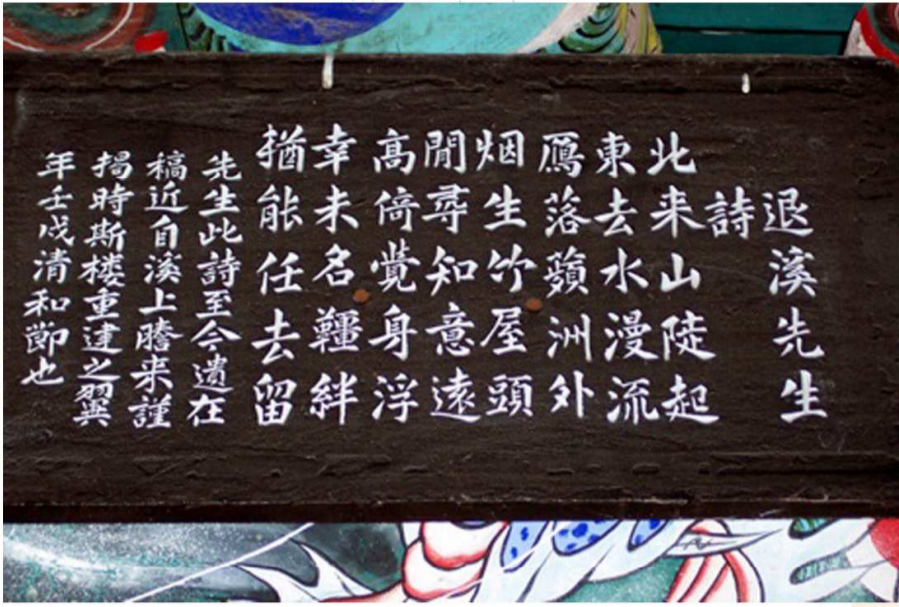


함벽루에는 퇴계의 처남 허사렴의 시도 걸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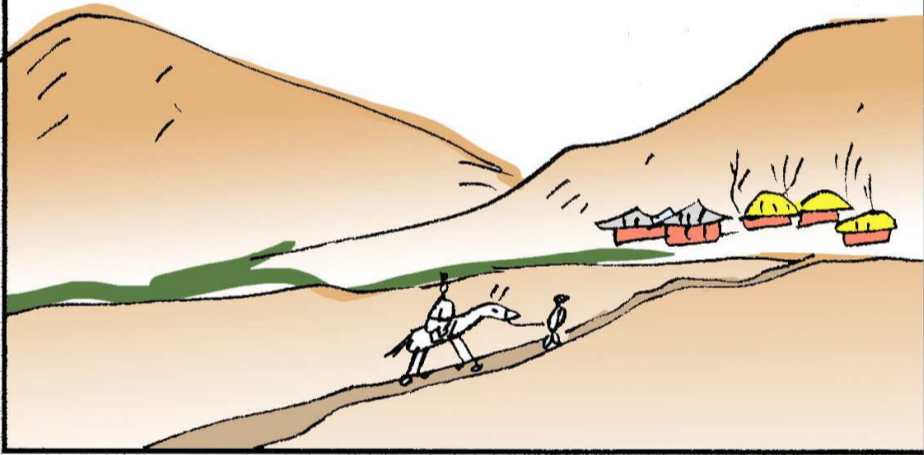
처남의 시를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오늘날 함백루에는 퇴계의 시도 걸려있다.



2월 5일 의령 가례 백암촌 처가에 이르렀다.



장인 허찬은 이제 노령



의령을 떠나 함안 모곡의 죽재 오석복을 만나러 갔다.



자연 속에 사는 그를 부러워하며 시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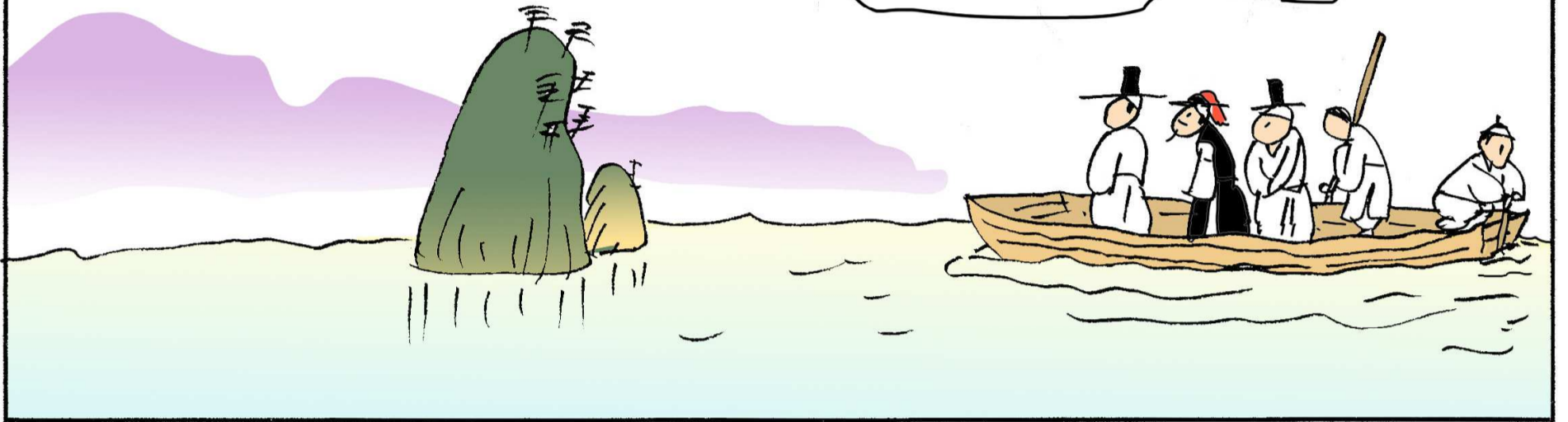
죽재의 매창안엔  
거문고와 책  
백발홍안의 오공은  
소년 같은데  
세월이 비껴 간 것을  
세상사람들은  
모르리



2월 15일 오석복, 오언의, 조윤구 등과 월영대에 갔다.

고운 최치원선생이  
이곳에서 제자를  
가르쳤다고합니다.

아, 네



의령으로 돌아와 백암촌 장인 집에서 묵고  
다음 날인 삼월삼짇날 처가권속과 차굴산  
보리사로 답청놀이를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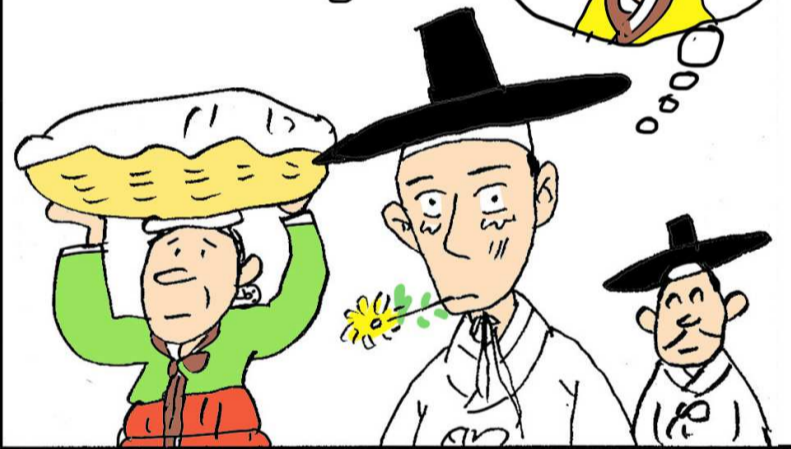
지지배배!

아, 살 것  
같다!



아~ 신혼 때도 아내와  
처가집 식구들과  
오늘처럼 답청놀이를  
갔었는데...

서방님~



퇴계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허씨 부인을 그리며 시를 지었다.

‘꽃 꺾어 머리에 꽂으니 나비 뒤따르고  
연꽃 벌고 버들가지 흥겨운 서암지 못둑은  
삼삼오오 여인네들 연꽃보다 고왔지.’



3월 18일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

넷째 형님께서  
서울에서 오셨다고?

네.

이 여행의 목적지인 곤양의  
어득강 군수만 만나면  
바로 간다고 전해라.

그러죠.

3월 28일 진주에서 곤양으로 가 관포 어득강을 만났다.  
곤양은 사천시 곤양면 남산에 있다.

늙은이가 실없이  
한 초청에 거절  
않고 와 주시니  
고맙소.

오는 길에 처갓집에  
들리느라 늦었습니다.

관포는 욕심이 없고 염치를 숭상하여 가난하고 청빈했다.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월영대에서 본 적이  
있지만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 것 같았지요.

어득강은 대사간까지 올랐으나 담백한 성품에  
여러번 외직을 청하고 물러나기를 좋아했다.

남산에 올라 곤양의 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요즘 제가 학문의 길을  
가야하나 출사를 해 벼슬길에 나서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출처 거취는 스스로  
결단할 일이지 다른 사람과  
괴할 일이 못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치에 정미롭지  
못하고 뜻이 강하지 못하면 중간에  
마음이 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학문에 전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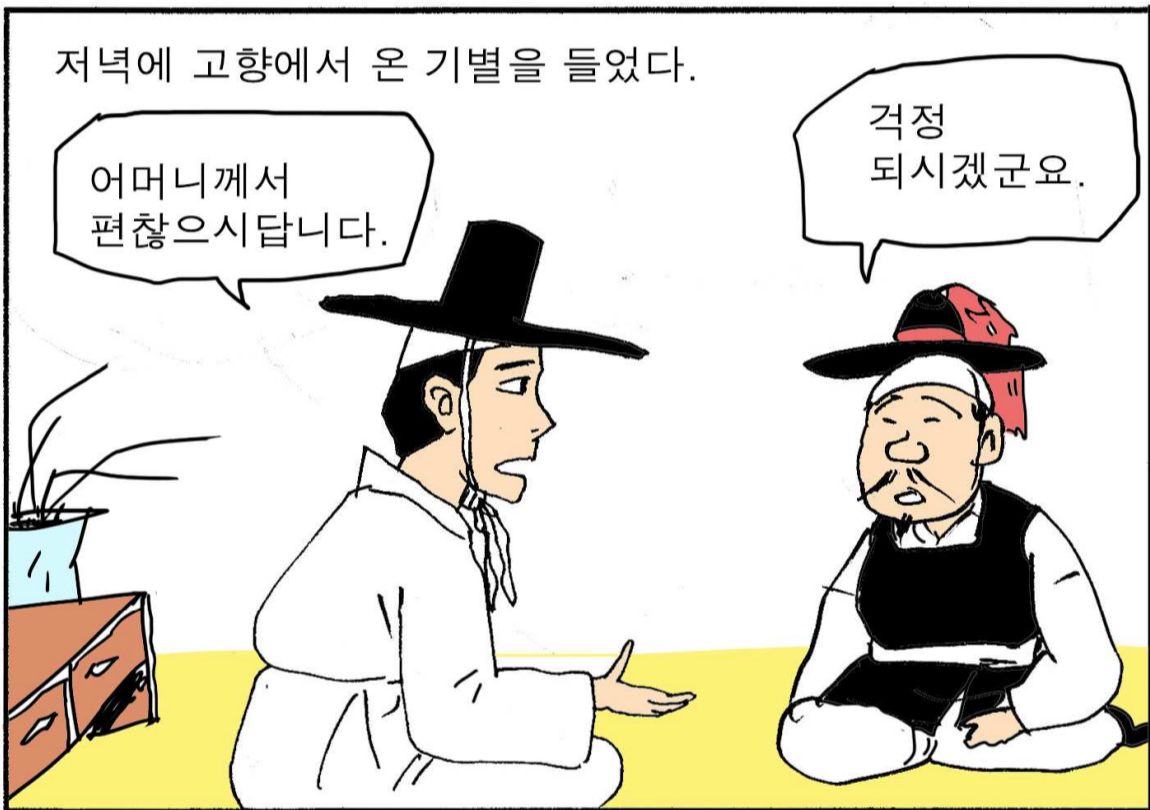


출사와 진퇴는 들어왔다 나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걸 어찌 한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답니까.





저어기 보이는 저 섬이 작도 즉 까치섬이죠.



저녁에 고향에서 온 기별을 들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답니다.

걱정 되시겠군요.



쌍계사는 보고 가셔야죠.

아직은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관포 어득강은 덕천강변 소나무 숲 완사계에서 전별연을 베풀며 아쉬움의 시를 지었다.

“내 그대와 더불어 쌍계사를 유람하려 했으나 만나자마자 이별이니 인간의 힘으로 천리를 어찌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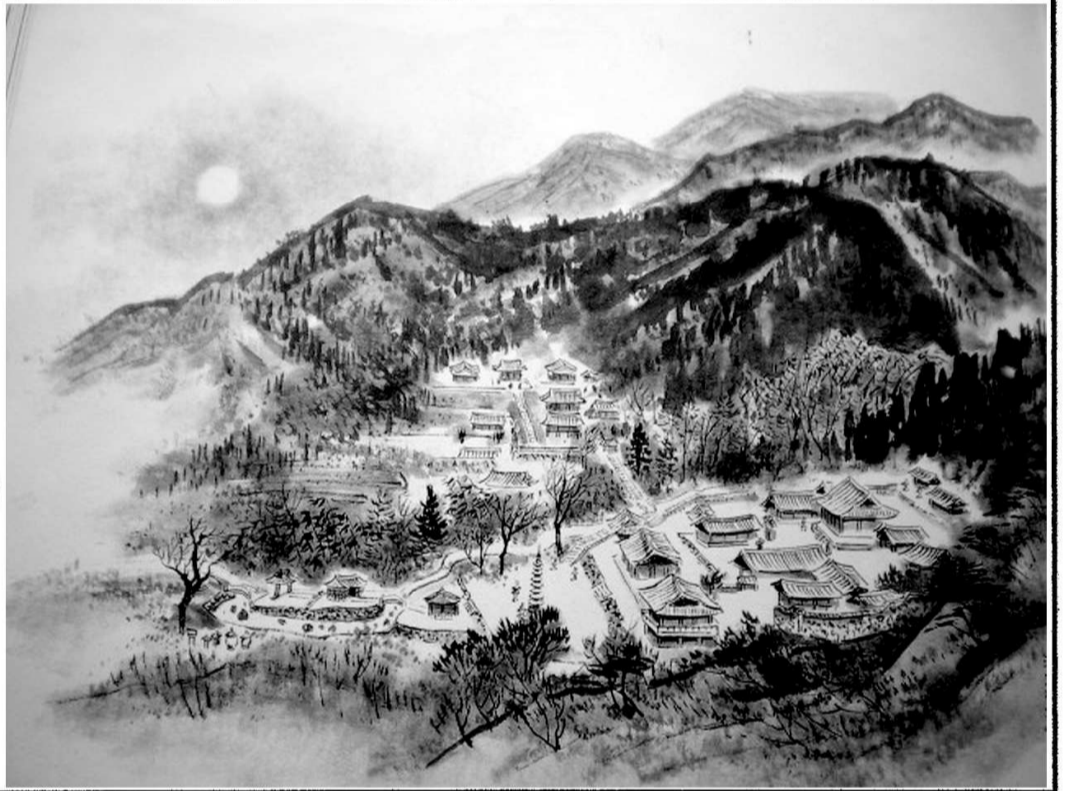
퇴계가 화답했다.

‘완사계 물빛은 거울처럼 빛나는데  
해질 무렵 들리는 어느 집 피리소리  
관포는 날 보내고 나 또한 가야하니  
석별의 정을 우거진 방초인들 어찌하랴.’



“쌍계사 유감”이라는 시도 남겼다.

“빼어난 쌍계의 경치는 신선이 노닐던 곳,  
날 초대 한 것이 빈말이 아니드라.  
일에 몰려 돌아가니 부끄럽구나,  
구경하자고 한 계획을 바꾸었으니”



퇴계는 학문과 출사 사이에서 고민하던 차에 노학자  
어득강의 초청으로 아내를 여윈 시름을 잊고자  
여행을 떠나 만나는 사람들과 즐겼다.



돌아오면서는 아내를 여윈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 출사를 결심하게  
되니 이로써 남도순례길을 접는다.

“집 떠날 땐 목이 말라  
얼음 물 찾았는데  
돌아올 땐 시 읊조리며  
푸른 보리이랑 건넜네”

